

## 실패한 근관치료, 재치료하면 정말 나올까?

김진우 / 강원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존학교실

치과 임상에서 실패한 근관치료를 마주했을 때, 술자는 재치료를 통한 치아 보존과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재근관치료는 낮은 수가와 높은 난이도, 그리고 예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개원가에서 기피되기도 하지만, 자연치아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임플란트 전 최후의 보루로서 막중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실패한 근관치료는 재치료를 통해 과연 얼마나 치유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신 문헌 근거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재근관치료의 성공률과 장기 생존율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임상에서 치료를 진행할지 혹은 멈출지를 결정하는 전략적인 케이스 선택 기준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치료의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근관 내 감염원 제거와 해부학적 구조의 재해석에 대해 논의합니다. 찾지 못한 근관을 찾는 방법과 이전 치료의 오류를 수정하여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기 위한 실전 지침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 강의를 개원의 여러분께 재근관치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고, 보다 명확한 임상적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학력 및 경력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석사, 박사
- \*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 회장
- \* 대한치과보존학회 회장
- \* 강원대학교치과병원 병원장
- \* 현, 강원대학교 치과대학 교수